

김주찬 “도루는 나의 또 다른 이름”



역대 2번째 9년 연속 20도루·7번째 350도루
“빠른 발, 프로무대 열어줘...야구인생 버팀목”



“지금까지 내가 야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다. 올해도 KIA의 풍성한 가을은 기대할 수 없게 됐지만 아쉬움 속에서 기록의 결실을 맺은 이들이 있다. 프로야구계에서 손에 꼽는 발, 외야수 김주찬도 값진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김주찬은 지난 6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NC와

의 원정경기에서 3회 중전안타로 출루한 뒤 3번 필의 타석에 2루를 홈쳤다. 이 도루로 김주찬은 9년 연속 20도루의 위업을 달성했다. 9년 연속 20 도루는 연승 시즌 20도루 최다 기록으로 지난 7월 한화 정근우(2006~2014년)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9일 LG와의 홈경기에서도 김주찬은 값진 도루를 만들어냈다. 1회 선두타자로 나와 좌전안타로 출루한 김주찬은 이내 2루를 홈치며 350도루를 채웠다. 7회에는 안치홍과 더블 스틸도 합작하며 팀의 10-7 재역전승을 이끌었다. 350도루는 전준호(550), 이종범(510), 정수근(474), 이대형(400), 이순철(371), 김일권(363)에 이어 역대 7번째의 기록이다. 지난 8월22일 잠실

LG전에서 프로통산 4번째 400도루를 찍은 이대형에 이어 현역선수로는 2위다. 9년 연속 20도루와 350도루는 김주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록이다. 김주찬은 “도루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내가 야구를 할 수 있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의미 있는 기록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빠른 발이 있었기에 험난한 프로 무대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발로 뛰면서 팀을 대표하는 선수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발로 기록을 써온 김주찬은 남은 시즌에는 타격 기록에 도전한다. 6·7월은 김주찬의 달이었다. 두 달간 김주찬은 17타수7안타, 0.438이라는 타율로 고공행진을 했다. 8개의 홈런도 터트리면서 절

정의 타격감을 보여줬다. 그러나 타격왕 경쟁에 불을 붙였던 김주찬이 8월 부진에 빠졌다.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8월 타율은 0.224로 푹 떨어졌다. 전면에 공격을 이끌었던 김주찬이 주춤하면서 KIA의 공격에도 제동이 걸렸다. 잠잠하던 김주찬이 움직이고 있다. 지난 9일 3개의 안타를 몰아치는 등 상승세를 알렸다. 김주찬은 “아직도 타격감이 왔다갔다 한다. 잘 치려는 것보다는 중심에 맞추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 타율을 생각하기 보다는 밸런스를 찾아서 밸런스로 치는데 중점을 두겠다. 남은 시즌 욕심 부리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슈틸리케號 코치진 구성 마무리

신태용·박건하·김봉수...본격 지휘는 24일부터

울리 슈틸리케(60·독일·사진) 축구 대표팀 사령탑을 보좌할 국내 코치진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신태용(44) 코치를 중심으로 홍명보호에서 활동한 박건하(43) 코치와 김봉수(45) 골키퍼 코치가 유입된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1일 “베네수엘라 및 우루과이와의 평가전에서 신태용 코치를 도운 박 코치와 김 코치가 슈틸리케 감독을 도울 내국인 코치로 남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3명의 코치진 이외에 추가로 1명의 코치를 더 데려올 가능성도 남아 있다”며 “조만간 코치진 구성을 모두 끝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0월 두 차례 평가전(10월 10일·14일)부터 본격적으로 출항하는 ‘슈틸리케호’는 슈틸리케 감독이 대동하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카를로스 아르무야(65) 수석코치와 3명의 국내 코치가 팀을 조련하게 됐다. 슈틸리케 감독은 이미 이영수 기술위원장을 통해 내국인 코치 2~3명을 축구협회서 선임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축구협회는 슈틸리케 감독의 요청에 따라 신



태용 코치를 먼저 선임했고, 베네수엘라와 우루과이 평가전에 박건하 및 김봉수 코치를 기용해 1승1패의 성적을 거뒀다. 슈틸리케 감독은 이날 출국에 앞서 오전에 숙소에서 3명의 코치진과 첫 코칭스태프회의를 열어 10월 평가전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슈틸리케 감독은 10월에 소집할 해외파 선수들의 윤곽을 국내 코치진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공격 축구로 4위 수성”

K리그 챌린지-광주 FC 내일 고양과 홈경기

광주 FC가 승강 플레이오프의 마지막 도전인 4위 지키기에 나선다. 13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광주 FC와 고양 HiFC와의 K리그 챌린지 26라운드 경기가 열린다. 광주는 앞선 안산 경찰청과의 홈경기에서 0-1로 지면서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잊지 못했다. 승점을 더하지 못한 광주는 5위 강원에게 골 득실 차로 앞선, 아슬아슬한 4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만나는 8위 고양과는 승점 차가 2점에 불과하다. 고양은 광주보다 한 경기 덜 치른 만큼 승점이 더욱 간절하다. 광주와 고양은 역대 전적에서 3승1무3패를 기록하며 호각지세를 보이고 있다. 매 경기 치열한 접전은 실수에서 승패가 갈렸다. 4위 수성을 위해서는 광주의 화끈한 공격이 필요하다. 올 시즌 광주는 25경기에서 25골을 넣는데 그쳤다. 주도권을 쥐고도 골망을 흔들 마지막 한방이 부족해 고개를 숙이곤 했다. 기분 좋은 기억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광주는 앞선 고양과의 승부에서 4-2 대승을 거뒀다. 앞선 기억을 되살려 광주가 4위 수성을 위한 공격에 불을 붙일 수 있겠는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첫 독립야구단 ‘고양 원더스’ 해체

허민 구단주, 창단 3년만에... “불투명한 미래에 한계”

“한국 최초의 독립구단” 고양 원더스가 3시즌 만에 팀 해체를 전격 결정했다. 고양 원더스 관계자는 11일 “독립구단 운영에 한계를 느꼈다. 팀을 해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더스는 이날 오전 고양시 국가대표 훈련장에서 열린 선수단 미팅에서 해체 결정을 통보했다. 원더스 구단은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에게 11월말까지 월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코칭스태프가 프로야구 구단의 테스트를 치는 선수들의 훈련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구단은 훈련장소를 제공하고 훈련비도 지원할 계획이었다. 원더스는 2011년 12월 프로구단에 지명받지 못하거나 방출당한 선수들을 모아 창단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패배자의 집합소’였지만 짧은 순간에 원더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동정’에서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원더스는 올 시즌까지 퓨처스(2군)리그에서 변의경기를 펼쳤다. 2012년 교류경기로 치른 48경기에서 20승 7무 21패(승률 0.488)를 기록한 원더스는 2013년 27승 6무 15패, 승률을 0.643으로 끌어올렸다. 올해에는 교류전을 90경기로 확대했고 43승

12무 25패(10경기는 우천취소), 승률 0.632를 기록했다. 2012년 7월 투수 이희성의 LG 입단을 시작으로 올해 7월 KT와 계약한 외야수 김진곤까지 22명이 프로에 입단하는 기적을 일궜다. 황목치승(LG)과 안태영(넥센), 송주호(한화)처럼 프로 1군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도 나왔다. 2015 신인 2차 지명회의에서는 포수 정규식이 원더스 선수 중 처음으로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에 입성(LG 2차 4라운드)하기도 했다. 정규식은 계약을 마치면 원더스 출신 23번째 프로야구 진출 선수가 된다. “원더스를 통해 한국 사회에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던 ‘야신’ 김성근(72) 감독과 매년 사비로 30억원 이상을 구단에 투자한 ‘괴짜 구단주’ 허민(38)의 만남은 다양한 화제를 만들어내며 야구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구단 내부에서 “매년 시즌을 시작할 때마다 경기 수 등을 걱정해야 한다”며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회의가 담긴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구단 존폐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결론은 ‘해체’였다. 결국 9월 11일, 이들은 도전을 멈췄다. /연합뉴스